



미기총과 JAMA가 주최한 "미주 교회 연합 기도성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3일간 열렸다. ©은혜한인교회 제공



주님세운교회가 터키의 난민촌에 생필품을 전달하며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님! 미국을 회복시키소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JAMA가 주최한 “미주 교회 연합 기도성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 땅 고쳐 주소서”란 주제 아래 3일 동안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 뉴욕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정인수 목사

“다시 새롭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저녁에는 김남수 목사가 “더 나은 분향”을 주제로 설교했다. 저녁에는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영교회), 정기정 목사(파이어 크루세이드 지도목사)가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과 선교를 위해 기도했다.



김남수 목사

주일에 열린 마지막 집회에서는 김남수 목사가 “좋게 보이는 위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번 기도회는 지난해 11월 11일 일어난 버라이즌 극장에서 열렸던 다민족기도회의 기도 열풍을 전국의 한인들에게 확산시켜 한인들이 미국의 부흥과 영적 대각성의 주춧돌이 되자는 비전 아래 진행됐다. 이후 2월에는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3월에는 뉴욕 프라미스교회, 4월에는 워싱턴DC 열린문장로교회, 5월에는 시카고 레이크뷰장로교회, 6월에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각각 행사가 진행된다. 애틀랜타 지역은 이미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김넷)와 미기총 공동으로 기도회가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에서 진행된 바 있다.



권준 목사

첫째날에는 권준 목사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사람”이란 말씀을 전하고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김철민 장로(CMF가정사역원), 김정우 목사(남가주동신교회 청년담당)가 각각 회개와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주제로 기도회를 인도했다.



한기홍 목사

둘째날 새벽에는 한기홍 목사가 “부흥만이 살 길입니다”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저녁에는 정인수 목사가 “부흥의 인생, 부흥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객재필 목사(OC목사회장), 더글라스 김 대표(HYM),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가 학교와 문화, 부흥을 위해서 합심기도했다. 특별히 영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참석해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다.

셋째날 새벽에는 정인수 목사가

바로 지금이 난민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

주님세운교회 터키 난민촌에서 구호 활동

“시리아 난민들의 영혼이 갈보리 십자가로 나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진리를 무슬림들에게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힘차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박해로 인해 난민으로 전락한 시리아인들이 머물고 있는 터키 내의 난민촌을 방문한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소식을 전해 왔다. 박 목사 등 주님세운교회의 구호팀은 13일부터 28일까지 터키 난민촌에서 난민 한 가정씩 한달 간 생존할 수 있는 빵과 식수, 모포 등이 포함된 3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나눠주고 있다.

박 목사는 “터키의 난민촌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서신에서 “이곳 난민촌은 가는 곳마다 갖가지 애환이 넘쳐나는 슬픔의 장소였지만 성도들이 베푼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었다”고 전했다. 그는 IS에 의해 가족을 잃은 사람

들, 굶어죽은 사람들, 딸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함께 울며 기도했다고 한다. 박 목사는 이들에게 “한국도 일제시대에 20만 소녀들이 일본에 의해 끌려갔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다”고 위로했다. 그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또 이번 기간 중에는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다. 귀신 들린 여성이 기도로 치유 받고 복음을 영접했으며 여러 병자와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는 “난민 가정마다 다니며 생필품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안수기도 사역으로 큰 위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안디옥개신교회에서 운영하는 시리아 난민 자녀를 위한 “이레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13명의 시리아 학생들과 4명의 교사들이 예수님을 구주

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도 있었다. 난민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도 거행했다.

박 목사는 “이곳은 30만명의 난민이 있는데 정부의 혜택을 받는 난민은 1만 5천명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져 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매달 100달러를 난민 고아들에게 후원하는 운동을 벌이자”고 했다. 그는 “미국의 모든 교회가 안디옥개신교회를 통해 난민들에게 생필품을 전하면서 성도 2명이 고아 1명을 영적으로 입양해 기도하면서 매달 100불씩 돕자”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갈 때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돌아갈 것”이라 기대했다.

끝으로 박 목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소원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불꽃이 되어, 함께 손잡고 실천한다면 저 어두운 이슬람의 땅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며 편지를 마쳤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파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Practicing Excellence with Winning Strategy

JEONG & LIKENS가 상법, 민사, 지적재산권, 노동법, 부동산, 건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상법/민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서비스 거래 계약 위반 • 채권/채무/파산 관련 소송 •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 비즈니스 파트너 간 소송 • Non-profit 협회 관련 소송 • 장애자법(ADA) 관련 소송 • 비즈니스 관련 보험사 상대 소송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등 저작권 등록 • 의류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 영화, 음악, 방송 관련 저작권 소송 • 상표권 등록 관련 소송 •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서/직원핸드북 작성 • 오버타임 등 노동법 관련 소송 • 차별, 보복 행위 관련 소송 • 부당해고 관련 소송 	부동산/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매매/에스크로 관련 분쟁 • 비즈니스 매매 관련 소송 • 커머셜 리스 관련 분쟁 • 은행과 커머셜론 관련 분쟁 • 건설 관련 분쟁 • Mechanics lien/stop notice 관련 소송
---	--	--	--

기독교일보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정찬용

Loyola Law School, J.D.
 Senior Articles Editor,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Published an article on Antitrust Law,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Won 2006 Annual Writing Competitio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 Management

Tel. 213.688.2001 | 1055 W. 7th Street, Suite 2280 Los Angeles, CA 90017

JEONG & LIKENS, L.C.
 www.jeonglikens.com



군목이나 원목 등 체플린 사역에 관해 최조셉 대위가 설명하고 있다. 체플린 사역은 영적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찾아가 섬기는 보람된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사역지 미군”

“사람들은 제게 안정적인 목회를 권했지만 저는 도전적인 무엇인가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소령 이계창 목사

26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LA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제1회 군목 및 체플린 세미나에서 해군 소령 이계창 목사는 약 3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강한 도전을 던졌다.

13살 때 목회자 아버지를 따라 이민 온 후, EM 목사로 사역했던 그에게 있어서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제자화 하는 군목 사역은 큰 매력을 갖고 있었다. 비록 고된 훈련과 생명의

위험, 가족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야 하는 외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군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고 지원했다. 이 세미나에서 그는 군목의 기능을 예배 인도와 성경 공부, 사회봉사와 부대장의 영적, 도덕적 보좌관 역할 등으로 정리하며 자신이 해군과 해병들을 섬긴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7년 복무 기간 중 대다수를 전함과 바다에서 보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을 전한 이야기를 할 때엔 긴장감마저 흘렀다.

이어 육군 예비군 군목이면서 토랜스의 한 종합병원에서 원목으로 있는 최조셉 대위도 군목의 지원 방법과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군목과 원목, 즉 체플린 목회를 지원하게 된 부르심을 설명하고 이 사역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영적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역이라 소개했다.

또 20년간 육군 군목으로 섬기며 이라크전에도 참전했던 채영일 예비 중령도 참석해 장교의 자격에 대해 설명했고 파인스타인 스테반 목사도 예비군 군목의 사역을 소개했다. 특별히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도 이 세미나에서 군목 지원자들의 신분 변경 문제에 대해 상담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성 4명, 여성 1명이 군목으로 지원하기로 결단했다. 문의) 김경렬 목사 310-502-9999, smkckim@gmail.com



장재호 목사 초청 세미나가 LA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열렸다.

성령에 붙잡혀 양떼를 위한 책임목회 하라

8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45년 목회를 통해 얻어진 목회의 진수를 하나라도 더 후배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장재호 목사(서울 성은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양떼를 천국가기까지 책임지는 책임목회를 하라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장재호 목사를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됐다. LA기독교방송(남철우 목사)이 주관한 세미나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됐다.

장 목사는 “목회자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로 알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것, 그 영혼이 천국에 갈 때까지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영적인 은혜와 신령한 기쁨으로 살도록 목회할 것, 이를 위해서 인본주의적 사고와 방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목회할 것”을 권면했다.

세미나 후 장 목사는 멘토링을 신청한 목회자들과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조언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글포고클럽이 디지털 카메라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은 이 클럽 멤버들.

디지털 카메라 쉽고 재미있게 배워요

2009년 창립된 이글포고클럽(Eagle FoTo Club USA)에서 디지털 사진 촬영의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루는 제15차 디지털 카메라 세미나를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세미나는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의 이론 교육과 매주 토요일 실습으로 구성된다. 이 세미나는 아마추어 사진가를 육성하고 아마추어 사진 동호인의 지면을 확대해 커뮤니티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고 자연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간직한 남녀노소 성인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30명만 모집한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클럽에 가입해 매주 함께 출사하거나 매년 해외 장거리 출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세미나 장소 이글포고클럽 스튜디오(955 S. Western Ave. Suite 110, Los Angeles, CA 90006)이며 참가비는 200달러다. 문의) ableusa@gmail.com 310-901-3348



홍순관 목사가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OC장로협 주최 홍순관 목사 초청 세미나

지난 25일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김경섭 목사)에서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회장 김종대 장로) 주최로 “교회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행사는 OC장로협의 신년감사예배를 겸해 열렸다.

강사 홍순관 목사는 뉴욕주립대학교를 거쳐 미주에서 한인교인 등 다양한 목회를 하다 은퇴해 한국 순천 YMCA가 세운 대안학교인 평화학교에서 초대 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100여 명의 목회자 및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도영 장로의 사회로 엄재선 장로가 기도하고 홍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그는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며 현대 교회가 처한 자화상을 조명하고 지도자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했다. 또 장로협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참석자들에게 도전을 던졌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저희 "심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우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남가주밀알선교단 장학금 전달식이 25일 오펜지카운티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남가주교협 임원들이 한인타운 내의 한 노인아파트를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남가주밀알 15만2천 달러, 88명 학생에게 전달

신임단장에 이종희 목사 취임

남가주밀알선교단이 2015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15만2천 달러를 88명의 학생들에게 수여했다. 남가주밀알은 2001년부터 밀알의 밤 행사로 장학기금을 모금해 현재까지 14차례, 총 181만 달러를 897명의 학생에게 전달했다.



이재서 세계밀알연합 총재(좌)가 이종희 남가주밀알 신임단장(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25일 오펜지카운티한인교회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남가주밀알의 멤버는 물론 이재서 세계밀알연합 총재, 이영선 미주밀알 총단장, 김정기 북가주밀알 단장도 참석해 축하했다.

장학금은 총 14명의 장애인 장학생, 23명의 꿈나무 장학생, 5명의 근로 장학생, 5명의 에디슨 장학생, 6

사하라의 학생 15명, 장애인 사역자 10명 등도 장학생에 올랐다.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장애인 장학생 가운데 존스홉킨스대학 피바디음대에서 석사 과정으로 클라리넷을 전공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장성규 씨가 클라리넷 연주를 선사해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이종희 목사가 남가주밀알의 단장으로 취임했다. 이 목사는 총신대 신입생 시절부터 밀알선교단 동아리 활동을 시작해 미국에서도 시애틀밀알을 거쳐 남가주밀알에서 사역해 온 밀알인 중의 밀알인으로 꼽힌다.

김준형 기자

“사랑의 쌀 감사합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17일 현재까지 사랑의 쌀 기금 6만10달러를 모금하고 약 4,500여 명에게 쌀을 배부하고 있다.

올해 교협은 지난해와 달리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쌀 쿠폰을 쌀 신청자들에게 발송하고 신청자들이 한인마켓에서 쌀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동이나 쌀 운반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노인아파트 등지에는 직접 쌀을 배달해 전

달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교협이 갖고 있는 신청자 DB에 개인별로 등록돼 한 사람이 한 포대 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26일 오후 2시 남가주교협 정삼희 부회장과 이현욱 총무 등 임원들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유니온길 근처의 한 노인아파트를 방문해 112명의 신청자들에게 직접 쌀을 배부했다.

김준형 기자



OC교협이 신년하례 행사를 음악회와 겸해 개최했다.

유니온교회 제5대 담임에 김신일 목사 취임

유니온교회 제5대 담임에 김신일 목사가 취임했다. 김 목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유니온공동체에 다가가며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께 기도로 늘 가르침을 받겠다”고 전했다.



유니온교회 제5대 담임목사 취임식의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했다.

미주성결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답게 25일 열린 취임식에는 교단의 주요 관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새 담임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경원 목사(남서부지방회장)는 “부흥하는교회(행1:8-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유니온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유니온교회의 이정근 원로목사는 동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왔다. OC교협 김기동 회장, LA동부교협 송병주 회장도 축사를 전했다.

김신일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서던밴티스트신학교, 에즈베리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달라스연합교회 담임목사로 8년간 섬겼다.

문소현 기자

OC교협 신년하례회와 작은 음악회

영적각성집회와 이민목회 세미나 예정돼

오펜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2일 2015년 신년을 맞아 신년하례회를 드리고 이어 작은 음악회를 갈보리새생명교회(담임 민승기 목사)에서 개최했다.

1부는 신년하례 감사예배로, 회장 김기동 목사의 사회와 후원이사장 이범식 장로의 기도, 그리고 이사장 엄영민 목사의 설교와 증경회장 정영수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2부 순서는 호서예술전문학교 윤현수 교수와 오르가니스트 윤삼건 씨를 초청해 작은음악회가 열렸다.

3부는 총무 신현철 목사의 진행으로 2015년 사역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1월은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주정사 방문 기도회와 신년하례회가 진행됐고 2월은 제4회 OC단체장·기관장·정치인 초청 조찬기도회, 3월은 영적각성집회와 이민목회 세미나, 4월은 OC지역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5월은 제5회 사모블레싱나잇, 7월은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식, 8월은 차세대 컨퍼런스 등이 있다.

김나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동명타운) T.323.737.8888

Fullerton 지점: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아리랑마켓 옆)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	\$90	240g 소비자가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355
4개 구입시	\$230	3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기독일보의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굿네이버스는 기독일보와 함께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을 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5세 이하의 아이들 100만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제 한병과 약간의 식량이면 허무하게 끝나가는 이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네이버스 친선대사 최수종 드림



당신의 나눔만이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후원문의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기관으로써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전세계 32개국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 여승훈 목사의 목상칼럼

정확한 진단과 온전한 회복



여승훈 목사
복음주의 칼럼니스트

요즘 호주에서는 2015 아시안 컵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준결승에서 이라크를 꺾고 결승에 올랐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 축구의 뛰어난 경기력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다.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를 때 전 국민이 열광했던 그 감동이 오랫동안 그리움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축구 선수들의 기대 이상의 경기력으로 인하여 2002년의 감동을 다시 조금이나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2002년 월드컵 하면 여러가지 기억 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히딩크 감독이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계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준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히딩크 감독이 2002 월드컵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남긴 명언 하나가 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말이 있다. 승리를 거두고 있던 히딩크 감독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싶다는 이야기다. 월드컵에서 1승 올리는 일을 기적처럼 여기던 한국 축구가 16강을 통과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16강을 넘어 8강에 올랐는데도 히딩크 감독은 여전히 승리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무엇에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가?

마치 텅 비어 있는 창고 안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처럼 허전함을 느끼지는 않는가? 목표를 잃어 버리고 표류하는 한 척의 배처럼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왜 사는 지, 왜 오늘 하루 어제와 동일한 일을 반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고독과 외로운 감정에 휩싸여 있지는 않는가? 삶의 무료함으로 의욕 상실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감정들로 인하여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하여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주저 앉아 있지는 않는가?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가?

정확한 진단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진단을 잘못하면 잘못된 처방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필자가 아는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은 1년이 넘게 배가 아파서 동네 작은 병원을

찾아 갔더니 별 문제 없어 보인다 하면서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약을 처방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래도 배가 계속 아파서 어느 전문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진찰 결과 암 3기말이었다. 2년 정도 병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결국 소천하셨다.

지금쯤은 무엇보다 냉철하고도 바른 진단이 필요한 시대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가버려 여기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진단은 가버려 여간체 무엇인가 새롭게만 하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는 어렵고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모 교회에서 분위기 쇠신을 위하여 개혁적인 슬로건을 몇 가지 발표한 것을 보았다. 그 슬로건들을 보면서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성경의 진술이 참으로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착잡한 기분이 들기까지 했다. 새로운 결심문 몇 가지 내걸면 뭔가 새롭게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타깝게 느껴졌다.

우리나라 속담에 “밀 빠진 독에 물붓기”란 말이 있다. 장독 밑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안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라. 하루 종일 열심히 붓고 또 부어도 장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여 행하고 있다. 밀 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열심히 물을 붓는 수가 아니라 밑에 구멍이 난 자리를 메우는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물만 붓고 있는 것이다.

교회들이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형제들이여!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슬로건이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만한 방법론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사람들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데 진작에 그리스도 예수 그

분을 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진단의 핵심이며 결정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라. 이른 아침에 방안의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 마셨을 때 그 상큼함을 상기하여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른 아침에 들어 마시는 상큼한 공기보다도 낫다. 복잡한 환경을 통하여 당신 안에 찾아 들어온 탁한 공기는 당신의 내면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혼란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탁한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상큼한 공기가 필요하듯이 내면의 탁한 정서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당신의 영혼의 청량제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흡수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선한 영의 공기가 들어 가면 내면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면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내면의 방황이 멈추게 된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연륜과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매일 매일 공통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고파 하여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항에서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인가’고 묻는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매일 매일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으뜸되는 목적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고파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배고픔은 곧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로 채워질 것이고 그렇게 채워진 그리스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이 참으로 즐거워 하는 것이다. 기쁨, 평안, 만족, 자유, 해방이 모든 단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다. 기독교는 성경이 목표로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오 그분을 더욱 풍성히 즐거워 하는 것이다. 무엇을 시도하기 이전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즐거워하라. 고통의 깊은 수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을 지날 때에도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길을 찾으라.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다.

W M S

WISDOM MISSION SCHOOL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 학생이 변화되는 학교



믿음의 놀라운 성장

본지는 학업을 포함해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학생들이 WISDOM MISSION SCHOOL(WMS, 지혜 선교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명문대에 진학했는지를 알려주는 간증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WMS는 19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약 45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Harvard, Yale, Stanford, UC Berkeley 그리고 의과대학 등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에 입학시켜 온 Han Sam SAT 학원이 모태다.

이 학교는 이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각 학생들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견, 계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세상에 진출시키는 데에 그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Andy Chung 군
UC Irvine

(WMS)의 소그룹 성경 공부와 클래스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바쁜 학회 활동, 봉사 활동,

매주 모이는 선교 모임, 매년 여름 선교여행,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적은 공부 시간 가운데도 선생님께서 이해하시고 잘 배려해 주시고 실수를 고쳐 주시고 언제나 대화하며 도와주셔서 AP 5과목을 패스했다.

위즈덤미션스쿨은 나를 책임감 있는 사람,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준비시켜 주었고 하나님께 향한 나의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다. 하나님과 위즈덤미션스쿨에 감사드립니다.

<6번째 간증> 위즈덤미션스쿨

<다음 호에 계속>

학교 문의) 5851 Newman St, Cypress, CA90630
714-995-1900 / www.wisdommissionschool.com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마데테스 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2015년도

학생 모집

www.mrtsusa.org
E-Mail: mrtsusa@hotmail.com

“신학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학위취득 과정 및 야간,통신,인터넷, 학생모집 학과

◆대학교과정(Bachelor)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학학사 기독교 교육학사 종교 음악 학사 	고졸 및 동등학력 자
--	-------------

◆대학원과정(Master)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 교육석사 종교 음악 석사 신학석사 목회신학 석사 	대졸 및 동등학력 자
---	-------------

◆박사과정(Doctor)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 교육학 박사 목회신학 박사 신학 박사 종교철학 박사 	대학원 및 동등학력 자
---	--------------



- 본교는 순수한 개혁주의 기독교대학으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발굴하여 훈련하며 지원하여,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각자가 힘껏 헌신할 수 있도록 사역자의 길을 준비케 하여 세상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 또한 본교는 세계 어디에서나 학문을 연구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및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르심에 확실한 소명이 있는 사람 중에 재정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 학비 전액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나 왼쪽 위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교무처: (323)428-7878 ● 교학처: (213)999-1307
● 한국 사무소: 070-7883-3011 / 02-888-0672

2015년 Spring Semester Time Table 봄 학기 강의 과목

Subjects	Professor
◆ 조직신학(기독론) Systematic Theology IV	현연섭 박사 Dr. Youn Sup Hyun
◆ 청도교 신학 Puritan Theology	박상목 박사 Dr. Sang Mok Park
◆ 기독교 교육 철학 Philoso. Chr. Education	임영호 박사 Dr. Yong Ho Yim
◆ 욕기 Jobs	이정수 박사 Dr. Jing Soo Lee
◆ 시가서 Poetic Books	김철 박사 Dr. Chul Kim
◆ 성경적 지도자론 Biblical Leadership	정승룡 박사 Dr. Joseph S.Jung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U.S.A

성도의 생활원리

요한1서 1:1-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성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지옥형벌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지옥형벌의 저주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 성도는 믿음으로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새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받아 주시는 표시로 그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영어로 크리스천(Christian)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성도의 생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체로 쓰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조건으로 살리시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로마에서 쫓겨와 고린도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기술이나 노력만으로 그렇게 빨리 사업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업으로 열심을 냈고 결국 그 사업장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을 크게 일으켜 큰 수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사도 바울의 유럽과 아시아 선교 뒷바라지에 붙들어 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가상적인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거둬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쓰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하나님은 살리시며, 붙들어 써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혼신의 진액을 다해서 신령한 성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나와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조건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2.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각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자청하여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이 우리의 형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아시면서 이렇게 어렵

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한다면 불평 속에 있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기준이고 자기 입장 중심입니다. 아볼로라는 대학자도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했어도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중심이며, 이기적이고 자기를 나타내므로 자기가 대접받고 영광 받고 강사로 쟁기는 목적으로 살아오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를 통하여 하룻밤에 진리를 깨달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찬양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 인생으로 바뀌고 쟁기기를 목적으로 살았던 인생이 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하고 선교사로 가서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볼로라는 자기의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꾼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산 인생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영육간에 회개하고 성령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생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리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격이 된 사람입니다.

3.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본문 1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헬라어로는 호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호로고스라는 것은 인격적인 말씀을 뜻합니다. 그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인격적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로는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63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 본체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 전달을 위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10:17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이 인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생명소망은 말씀에서 전달되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과 사귀는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귀는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죽은 심령에도 전달되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귀는 사람들끼리 사귀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한 생명운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심령들에게도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 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잘 전달되어 이들이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영적인 소망이 우리에게서 곧 기쁨인 것입니다.

4. 하나님의 빛된 삶의 그리스도인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구원 얻는 성도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어둠을 배경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거짓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1서 6-7)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추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을 일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23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있고 로마서3:10-12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귀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 아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붙어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의 소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1:19-20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니라 여호와와 나의 말씀이니라" 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로 쓰임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촉시켜서 영원히 살리시는 영생의 소망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간정보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장: Sevis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명품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석사 전공)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서 한단고,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de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미주총신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se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다기독교학과(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다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다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2-0307
www.aeu.us / aeumaster@gmail.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자동차 도네이션

아리조나 인디오 선교사에게
자동차가 절실 하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도네이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Tel. 424 - 220 - 0360 (전 에스더 선교사)
213 - 718 - 1512

교회 안에서의 생활 윤리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지원하는 식사를 먹으며, 공중에 달린 좁은 침대에서 자면서 이 일을 이루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요세미티의 엘 캐피탄에 오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도전적이고 흥미진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평생의 삶을 사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보지 않은 길”(road less traveled)을 걷는 것과 같다. 성도의 삶은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 새벽담을 같이 등반한 칼드웰과 조거슨은 둘이 먼저 강력한 연합과 협력을 이루었고, 이어서 둘이 함께 주변의 환경을 이겨내야 했다. 내적 협력과 외적 극복은 이 팀을 정상부로 인도하였고, 성공적인 역사를 이루었다. 교회에서의 삶도 이와 같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적 결속과 협력이 없으면 쉽게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서 성숙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어렵다.

교회는 로봇 군단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community)이다. 공동체는 생체, 즉 유기체(organism)이다. 공동체는 생명이 있기에 교제하고, 동역하고, 나누고, 지원하고, 자라나면서, 다시금 동일한 지체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머리되신 주님을 섬기면서 같이 자라나는 지체가 되어야 하는 예수 중심의 “통일성”이 중요하다. 둘째는 “개체성”인데 공동체를 위한 나의 은사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나와 남을 비교하여 불평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임무를 잘 완수하는 일이다. 셋째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여 나의 일을 잘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다른 지체의 연합함을 감당하는 “연대성”이다. 이는 형제들과 동역하는 사랑의 나눔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

불편한 예수(Inconvenient Jesus)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 시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안하지 못하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다. 십대 아이들의 아버로서,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학교의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왜 청소년들이 예수(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를 불편하게 인식하는지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 참석이 불편하고 재미가 없다

청소년들은 주중 예배, 주일 예배, 기도 모임, 새벽기도회, 성경 공부 및 여러 모임을 불편한 행사로 여긴다. 특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시청하거나 볼 수 있기에 직접 교회에 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은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라 여긴다. 반복되는 형식의 예배는 스마트폰 시대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지루한 곳이다.

2. 예수님과 개인의 시간 갖기는 귀찮으며 아예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는 청소년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이것은 대부분의 기성세대 교인에게도 적용되는 지적이다). 말씀을 읽거나 묵상내지 QT, 그리고 말씀 암송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시간 갖는 것이 청소년에게 귀찮은 일이다. 이는 이미 분주한 스케줄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에 성경읽기나 묵상은 시간이 남을 때, 편할 때, 일주일에 몇 번, 몇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들은 여긴다.

3. 하나님의 임재를 꺼리며 심지어 방해라 여긴다

청소년은 누군가에 의해 방해 받고 싶지 않으며, 혼자 있고 싶어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개인 시간을 신성한 (sacred) 시간으로 여긴다. 그 시간은 부모나 예수나 어떤 권위자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시간으로 고집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 생활에 “불편한 침입자”로 인식하며, 예수가 “마술병의 마법사”이었으면 한다. 그저 필요할 때 나타나 원하는 것만 이뤄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4. 그분의 가르침과 지침이 불편하다

청소년은 정의, 섬김, 권리포기, 정직 등 성경의 가르침 본질 자체를 불편하게 여긴다. 성경의 원리 원칙은 그들에게 질질할 만큼 압박으로 여겨지며 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 확신한다.

5. 예수는 디지털시대 라이프 스타일에 시대 착오적인 존재다

수증기 기차가 현대 생활에 시대 착오적인 것같이 예수님은 디지털 세계에 시대 착오적인 유물같다고 청소년은 생각한다. 그들은 “기술 만능적인 현대 사회, 즉 디지털 세대에 고대 문서인 성경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문한다. 버튼만 누르면 많은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스승이나 교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없이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6. 예수나 성경의 가르침이 부모의 잔소리와 너무 흡사하게 들린다

청소년은 꾸준히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들은 10년 이상 들어온 부모의 가르침과 조언을 점차 불편한 잔소리로 여긴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라, 컴퓨터 게임을 절제해라, 남을 배려해 주어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등의 가르침이 아무리 성서적이라도 대부분의 청소년은 귀찮아 한다. 이런 분명 청소년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반응의 문제다. 허나, 이 시점에 부모가 잔소리를 절제하고, 때로는 자녀가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똥”을 주지 않으면 성경적 가르침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7. 교회란 속 좁고 증오로 가득찬 사람들의 집단체라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즉, 동성연애자, 낙태찬성자, 또는 무신론자를 교회와 기독교인이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이런 사람들을 거부하는가”란 아주 단순하며 소박한 질문을 던진다. 이들은 교회가 관용적 못하는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집단이며, 자신들처럼 “차이(difference)”를 존중하는 신세대 지식인은 이런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교회에 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교회가 비열(mean)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 말한다.

8. 과학적 이론과 자료가 성경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청소년은 종교보다 과학을 더 “믿는다.” 즉, 전설같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성경책보다 과학적 이론과 증거가 더 설득력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세속주의/인본주의 교육의 결산이라 하겠다. 청소년들은 과학적 이론과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검증하지 않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진화론”, “빅-뱅 이론”, “연대측정법(carbon dating)”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종교를 거부한다.

9.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것이야말로 많은 철학자들이 다룬 고전적(classic)인 문제다. 요즘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주변의 아픔은 물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 전염병, 기근, 대지진, 집단사살, 테러 등을 매일 접하고 있다. 우선 이런 소식을 접하는 청소년은 점차 둔감해지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는가”란 질문을 한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것을 “부재(absence)”로 간주하며 더 나아가 성경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10. 옴로 (YOLO: you only live once;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맘대로 살자)

성경의 하나님, 선과 악, 천국과 지옥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의 철학은 바로 허무주의(nihilism)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며,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그냥 각각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 죽자”란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못할 짓(?)이 있겠는가? 물론, 큰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극소수이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청소년이 많다. YOLO 철학이 무서운 청소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청소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런이들에게 정도와 정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제 위의 문제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루 이 시대 청소년을 다시 교회와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계속>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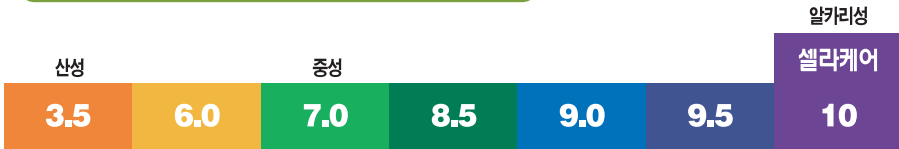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과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련(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발작하여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되고 시력, 피부, 머리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라지, 우울증, 불면증, 복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세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변화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먹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인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연(16세, 엘에이)
취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취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취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팩(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돌돌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세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도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호(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38

세계적인 의학박사 하루야마 시게오가 말하기를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은 20%정도 뿐이고 나머지 80%는 치료도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흉내만 내는 현실이다 라고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나온것이 자연정혈요법 또는 자정요법이라고 약물이나 의료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자연의 원리 하나로 거의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이 나왔습니다. 이 요법의 원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혈관들이 조금씩 피 찌꺼기(죽은 피)로 막히면서 병이 시작되고 늙고 결국에는 죽음이 온다. 이 찌꺼기만 청소하면 모든 병은 당장 사라진다. 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혈이 있고 눈병, 피부병, 잇몸병, 정신병, 우울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병은 어혈 때문이고 심장병 환자의 심장에는 이런 피 찌꺼기(어혈)가 가득 차있고, 머리병(두통, 탈모, 치매, 뇌졸중, 뇌경색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머리 속에는 이같은 어혈이 가득 차있으며 간, 위장, 척추, 관절, 근육, 피부, 어깨, 눈, 실제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신부전증이나 심장병, 당뇨병, 암, 백혈병등 치료에 불가능한 병들을 고친사람들이 수백명 또는 그 이상입니다. 어혈만 몸속에서 쏙 제거되고, 맑은 혈액만 만들어 진다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결린병도 사라지며, 무병장수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이치적으로나 실제적으로 100% 맞는 이론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필요 한것이 있다면 어혈을 뽑아낼때 맑은 피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맑은 피를 다시 공급할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어혈도 당장에 뽑아내고 맑은 혈액만이 공급되는 방법을 잠시 성경을 살펴보신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에베소서,골로새서,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한장을 되어있는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되었던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다음 기록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네시모라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간 노예였습

니다.그당시의 법으로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었지만, 사도바울의 중재로 인하여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형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이 오네시모를 용서 해주라고 권유 합니다

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8. 이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9.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11. 저가 전에 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12. 네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심복이라 13.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리하여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고, 골로새서 4장9절에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사역을 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네시모와 같았던 우리도 이와 똑같이 용서를 받은것 같습니다. 오네시모 선교회라고해서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은피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에 영양을 공급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지구의 두바퀴 반이나 되는 길이의 모세혈관에서 어혈이 어디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미노 에이씨드라는 공법으로 만들어진 마네랄을 드시면 마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막힌곳을 뚫어주고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을 공급해 주므로,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물지의 병에서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믿고 실행 해 보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에 저는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필달)	213.386.5310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토렌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시온약국	213.382.6485	LA별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 다운타운	213.798.3333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바비 진달 주지사 빌리 그레함 목사가 개종 결심 도와

“지금 미국에는 영적 대부흥 필요해”



가톨릭 미사에 참석한 공화당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그의 가족들

2016년 미국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공화당)가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데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영향이 컸다고 고백했다.

스스로를 “복음주의적 가톨릭 교인”으로 밝히고 있는 진달 주지사는 인도 이민 2세대로, 힌두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4일 자신이 주최해 루이지애나 베이튼루즈에서 열린 미국을 위한 기도회에서 15분여간 간증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도회에는 3천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했다. 앞서 진달 주

사는 이 기도회에 나머지 49명의 미국 전역의 주지사들도 참석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진달 주지사는 1970년대 그레함 목사가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의 타이거 스타디움에서 개최한 대규모 기도회가 자신이 기독교로의 개종을 결심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혀 왔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그레함 목사가 이날 보여 준 십자가에 대한 흑백 영상을 보고 난 뒤였다고 말했다.

진달 주지사는 자신이 개최한 기도회에 대해서 “미국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대부흥”이라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개입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겸손함과 정직함과 경외의 자세를 갖고 나라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며 “천국의 개입을 위해서는 천국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진달 주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그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미국에 해 줄 수 있는 것이다”며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대선에는 진달 주지사 외에도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남침례교 목회자이며 전 대선 주자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릭 샌토럼 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복음주의 교인들의 지지를 토대로 출마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손현정 기자

WEA 신임 총무에 에프라임 텐데로 목사 선임

필리핀복음총연합회 회장 출신
상호 협력 통한 영향력 확장 기대



에프라임 텐데로 목사

세계복음연맹(WEA) 국제위원회(IC)는 지난 23일(현지시각) 에프라임 텐데로(Efraim M. Tendero) 필리핀복음총연합회(PCEC) 회장을 WEA 차기 총무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제위원회 의장이자 임시 총무인 엔다바 마자바니(Ndaba Mazabane) 목사는 “중요하고 전략적인 인사 결정에 있어서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이번 결정은 기쁜 일이고, 텐데로 목사가 WEA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에프라임 총무는 “전 세계 복음적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자리를 주셔서 겸허한 마음이 든다. 이 사역으로 부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막중한 책임 수행에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다”고 했다.

에프라임 신임 총무는 지난해 10년의 임기(2회 역임)를 마치고 사임한 제프 터니클리프(Geoff Tunnicliffe) 박사의 뒤를 이어 5년 동안 WEA를 이끌어가게 됐다. 신임 총무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에프 목사’로 널리 알려진 에프라

임 텐데로 목사는, 지난 20년간 필리핀복음총연합회(PCEC) 대표로 섬겨왔다. 1965년 설립된 PCEC는 30,000여 교회가 가입된, 필리핀 내 최대 교계 연합기구이자 대통령자문기구다. 필리핀 내 해외 선교사의 비자 승인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연합회에 소속된 필리핀 구호개발서비스(PHILRADS)를 통해, 지역교회들과 함께 빈곤층을 섬기는 전인사역도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복음연맹의 동남아시아 국제퍼실리에이터로서, 통합 및 반부패를 위한 로잔선임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필리핀선교협회, 글로벌필리피노부르먼트, 백투더바이블브로드캐스트, 에반젤리즘 익스플로전3 필리핀 등 여러 복음적 기독교 단체의 이사장 및 에반젤리컬스튜데이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에프라임 텐데로 목사는 트리니티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박사과 아시아신학대학교·페비아스성경대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혜진 기자

니제르, 갑작스런 박해로 수많은 교회 파괴돼

현지 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찬양하며 회복 노력

니제르 기독교인들이 경찰의 보호 아래 가정 단위로 모이고, 무너진 건물과 집들을 재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뉴스가 2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 있는 선교사 가정은 편지를 통해 “이 나라에 지금껏 이런 재난은 한 번도 없었다. 수도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뿌리 뽑히고, 일부 학교와 고아원도 예외없이 동일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무슬림들의 시위는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게재한 프랑스 잡지사를 규탄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니제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진데르(Zinder) 지역

에서는 무슬림들의 폭동으로 인해 72개 교회가 붕괴되고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니아메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박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기 위해 교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들의 간증은 주일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니아메에 있던 교회와 목회자 사택이 무너졌다. 3개의 성경학교 역시 다양한 공격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피해와 손실이 매우 크다. 현재는 잃어버린 건물을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다”고 전했다.

니제르공화국복음교회(EERN)의 마이아키 카다이다이(Mai'aki Kadaidai) 목사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

를 상대로 한 공격이 5개의 지역과 수도권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광범위한 폭력을 목도하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카다이다이 목사는 “결과적으로 아가데즈, 다마가람, 디파, 마라디, 진데르 등 5개 지역과 수도 니아메에서 수많은 교회가 파괴됐다. 이 가운데는 우리 교단의 5개 교회도 포함됐다.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과 성도의 집이 4군데나 파괴돼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교단체인 크리스천에드미션(Christian Aid Mission)이 돕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은 공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니제르의 마하마두 이수푸 대통령은 지난 17일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과 회동, 안정 회복에 대해 논의했다.

강혜진 기자

러시아정교회 수장

‘기독교 풍자 행태’ 비판



러시아정교회
키릴 총대주교

러시아정교회 최고 지도자가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흐리 엡도가 기독교를 조롱하는 만평들을 게재해 온 것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키릴 총대주교는 25일(이하 현지시각) 설교에서 샤흐리 엡도가 테러를 당한 원인이 된 마호메트 만평들과 그동안 이 주간지가 기독교를 풍자하며 실어 온 만평들을 비교하며 “마호메트 만평은 이 주간지가 기독교인들을 조롱해 온 방식에 비하면 아이들 장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키릴 총대주교는 이어 “오늘 테러리즘과 살해, 폭력에 ‘아니오’를 선언하면서 또한 종교인들을 놀림거리로 삼는 일부 사람들에게도 ‘아니오’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했다.

키릴 총대주교는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세계적 종교 지도자로서는 두 번째로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동시에 종교 모독 행

위 역시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15일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다른 이들의 종교를 조롱하고 있다”며 표현 자유 한계를 말했다.

한편, 키릴 총대주교는 이번 설교에서 샤흐리 엡도의 기독교 풍자 만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샤흐리 엡도를 비판해 온 미국 가톨릭연대(Catholic League)의 빌 도너휴 회장은 샤흐리 엡도도 그를 넘어선 가톨릭 수녀들과 신부들의 성적 묘사 풍자를 비판했다.

손현정 기자

TOGO & 캐더링 환영

머글래 싸갈래

특석떡볶이 개시!!!





연말연시 동향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캐더링·도식락

월	북어국 돈까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닭불고기 콩치구이 오므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갈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크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갈비탕 재우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뎅백반	금	콩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까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	---------------------------------------	----------	--	----------	---	----------	---------------------------------------	----------	--	----------	--

요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미국 '낙태 반대' 연례 시위 수천 명 규모로 열려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생명주의자들 행진



낙태반대 연례 시위 '마치 포 라이프(March for Life)'가 열린 워싱턴DC 내셔널몰

미국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연례 시위 '마치 포 라이프(March for Life)'가 22일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개최됐다.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우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판결에 반대하며 매년 개최되어 온 이 시위에는 올해도 수천 명 규모의 생명주의 운동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생명을 보호하자", "낙태한 여성들의 대부분이 그 결정을 후회한다", "나는 프로 라이프(pro-life) 세대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와 내셔널몰부터 연방대법원 건물까지의 거리를 행진했다.

보수 정치계와 종교계의 지지 선언도 뒤따랐다. 특히 2016년 대선 주자로 예상되고 있는 릭 샌토럼 공화당 상원의원은 시위에 직접 참여해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이 시위 참여자들 가운데 여성과 청년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면서 낙태 반대는 여성의 선택권보다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샌토럼 의원은 또한 이날 미 하원에서 낙태 시술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했다. 그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적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법안이 오늘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에 앞서 공화당이 임신 20주 이상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당내 여성의원들의 반대로 철회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시위에는 미국 내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함께 참여했으며 미국 복음주의 교계 지도자인 리셀 무어 남침례교 종교외자유위원장과 프란치스코 교황 등 종교 지도자들도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교황은 트위터에 직접 "모든 생명은 (신의) 선물"이라는 지지 메시지를 남겼다.

손현정 기자

하나님 앞에 교육선교만 추구 학위 남발하지 않을 것

GRS 신년감사예배, 선교학 Ph.D., M.A. 준비 중



GRS 신년감사예배에서 스태프들과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리폼스신학대학원(총장 사무엘 랄슨 박사, 원장 김은수 목사 Global Reformed Seminary, 이하 GRS) '신년 감사예배'가 20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교 캠퍼스인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열렸다.

여호수아 3장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은 이 길을 와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사무엘 랄슨 총장은 "GRS는 개인 경건을 중요시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경건이다. 주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GRS의 리더십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진다. 유대 제자들은 말씀 앞에서 길으신 예수님을 반영하며 믿음 안에서 결코 두려움 없는 증인된 삶을 살았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야 한다. 그분은 의 존하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김은수 원장은 학교 경과보고 및 인사를 전했다.

GRS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 하심에 힘입어 그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 4월, 조지아 주정부 교육청(GA Nonpublic Postsecondary Educa-

tion Commission: GNPEC)으로 부터 목회학 박사과정(D.Min.) 및 석사(Master/Intercultural Ministry) 과정을 허가 받게 됐다. 조만간 재정적 요건을 갖춰 선교학 Ph.D. 과정(Ph.D./ Intercultural Study)과 선교학 M.A.(M.A./ Intercultural Education) 과정도 승인 받고자 준비하고 있다.

김은수 원장은 "복음주의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한 높은 수준의 선교 지도자 및 선교학 교수 육성 기관이 사라진 시점에서 GRS는 하나님 앞에서 '교육 선교(Educational Ministry)'만을 추구할 것이며 결코 학위를 남발하는 비정상적인 신학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GRS의 설립 초기부터 도왔을 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캠퍼스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제일장로교회 서삼정 목사(GRS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전한 후 총장 사무엘 랄슨 박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GRS 교수진은 총장 사무엘 랄슨 박사, 원장 김은수 박사, 교수 알렌 커리 박사, 해리 리더 박사, 프랭크 바커 박사, 하워드 에이리치 박사 등이다. 문의는 770-493-4004, 770-827-9689, grsglobal.info@gmail.com, 웹페이지 www.grs2011.org에서 하면 된다. 윤수영 기자

교회는... 선교회는...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p> <p>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p> <p>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p> <p>나성한인교회</p> <p>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p>
<p>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p> <p>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10:30 (수)</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8:30 (월-금) 오전 6:30 (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45</p> <p>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p> <p>김광삼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45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p> <p>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p> <p>김요섭 담임목사</p> <p>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p> <p>E.M.예배 주일오전 11:00 새벽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p> <p>이영 담임목사</p> <p>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p> <p>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p>	<p>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p> <p>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p> <p>한기형 담임목사</p> <p>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p> <p>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원일, 미음, 공,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p> <p>요한 선교회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넛 전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p> <p>gka1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김세환 담임목사</p> <p>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p> <p>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p> <p>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현연성 담임목사</p> <p>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 전도하는/환신하는 신앙 공동체</p> <p>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uinhoi@hanmail.net</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아침연후 오후 1:30</p> <p>주일학교 오전 11:00</p> <p>서건오 담임목사</p> <p>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lakwpc.org</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영아예배: 주일오전 10: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영아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p> <p>신현호 담임목사</p> <p>새하늘 교회</p> <p>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초.진신의 흐름,비전교회관의 흐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p> <p>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민종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전(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토)</p> <p>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곽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22</p> <p>주일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p> <p>박성도 담임목사</p> <p>LA 선교교회 내 지위를 내려,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나누며, 소망중에 기뻐하자</p> <p>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22</p> <p>EM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오전 6:20(토) 토요일예배 / 토요새벽 - 17와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LASFC대한학교(67)와 라파르트 코너-620 S. Fayette Park</p> <p>김기섭 담임목사</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인(2세)을 복음화하며, 이인(1세대)을 성화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p> <p>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a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 45)
1. 민족을 넘어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토)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pce.com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EM)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교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장모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사교부만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십출)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8:00
오후 12:00(본당)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조인 담임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뉴욕 목회자들, 故 이승만 목사 추모예배

25일 PCUSA 동부한미노회 주관으로



故 이승만 목사 추모예배가 25일 뉴저지 필그림교회에서 PCUSA 동부한미노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아시아 최초 미국장로교(PCUSA) 총회장을 지낸 故 이승만 목사의 추모예배가 25일 오후 5시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개최됐다.

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김진호 목사) 주관으로 드린 이날 예배에는 뉴욕과 뉴저지 PCUSA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타교단 목회자들도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승만 목사는 지난 14일 오전, 급성골수암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3세.

추모예배는 김진호 목사(노회장)의 인도로 김관선 목사(노회 은퇴목사) 기도, 남후남 장로(직전 노회장) 성경봉독, 필그림교회 남성중창단 성가찬양, 조덕현 목사(노회 공로목사) 설교, 조문길 목사(사무총장) 고인약력 소개, 목회자 일동 추모찬양, 윤명호 목사(노회 공로목사) 추모사, 김용주 목사(노회 공로목사) 추모사, 이승규 장로 유가족 인사, 김상수 장로(필그림교회) 광고, 양춘길 목사(필그림교회)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조덕현 목사는 '화해의 순교자'(고후 5:17-19)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고인의 화해를 위한 평생의 활동은 영원히 기억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면서 "화해의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고인에 대해 방지방 목사도 생전 높은 구상과 착상은 오로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추모사는 고인의 70년지기 친구인 윤명호 목사가 '나의 친구, 승만!'이라는 제목으로 전해 큰 감동을 줬다. 윤명호 목사는 추모사를 통해 평양에서 함께 신앙을 했던 추억들을 전하면서, 이민초기 미국 교회 내 한인으로서 당당히 활동하며 한인의 위상을 높여줬던 이승만 목사의 정신과 헌신적인 삶에 대해 증거했다.

김용주 목사는 '화해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의 추모사를 통해 고인이 한 평생 순례자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고인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 '내 주 예수 주신 은혜를 함께 부르며 추모예배를 마쳤다. 1931년 3월 25일 평양에서 출생한 이승만 목사는 미국 켄터키주 리이빌신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 1958-73년 켄터키주 보스턴장로교회와 웨스터민스터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1961-73년에는 켄터키주 루이빌대학교 교수 및 교목으로 사역했다. 1964년 예일대 신학부를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받았고, 1972년에는 시카고신학교 박사학위를 취득(중교사회학)했다. 1973-80년 미국연합장로교 세계선교부 중동 지역 총무, 선교국제학 총무를, 1980-88년에는 미국연합장로교 총회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총무를, 1988-98년에는 미국장로교 총회 세계선교부 부총무를, 1992-93년 미국교회협의회(NCC USA) 회장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별세하기 전까지 미국 버지니아 주 유니온장로교신학교 교수 및 총장특별보좌역을 지냈다. 2000년 6월 24일 미국장로교 제212회 총회장에 취임했고 컬럼비아신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이승만 목사는 1931년 3월 25일 평양에서 태어나 장로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평양 성화신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모와 네 명의 누이들은 북한에 두고, 남동생과 함께 남한으로 피신했다. 이 목사는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소식을 모른 채 지내다, 1978년 누이들과 연락이 닿았다. 이미 모친은 8년 전 소천하고, 아버지도 공산당원들에게 잡혀 옥사한 뒤였다. 이런 뼈아픈 경험은 그가 인생 전반에 걸쳐 평화와 화해, 특별히 남과 북의 평화 논의를 이끌어 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원 기자

뉴욕목사회 2015년 사업계획안 확정

9월 중 백두산 기도회

목회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목사회 이룰 것



뉴욕목사회 첫 임실행위원회가 20일 뉴욕효성교회에서 열렸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가 지난 20일 뉴욕효성교회(담임 김영환 목사)에서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는 특별히 상하반기에 목회자와 사모, 신학생이 참여하는 영성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9월 중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특별기도회'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를 갖는다. 또 친선탁구대회와 친선체육대회 등 체육 분야의 사업계획도 늘었다.

이만호 회장은 "목회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목사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목회자들의 영적, 목회적 역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미나를 마련했고, 지난해 큰 호응이 있었던 '시가 있는 목회'도 연속해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투병활동 중인 목회자 등 기도가 필요한 목회자들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회무에 앞선 예배는 최현준 목사(사회계)의 인도로 김신영 목사(부회계) 기도, 한재홍 목사(증경회장) 말씀선포, 황경일 목사(증경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김대원 기자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에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 /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 (60대 남) -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절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주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물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재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샘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업들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 (47세 여) - 구인외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러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닐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지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감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26 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기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갈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틀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 (84세 여) - 만성숙환으로 인사불성에 장례준비하라 의사 권유에 미라팜 며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식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 (60대 여) - 의료사고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권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튜브에서 "다사 미라팜" 을 검색하면 나눔
-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다.
-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 (50대 여) - 밤새 잠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 (60대 남) - 하루 5캡슐로 전립선이 많이 호전됐다.
- (50대 여) - 일주일 복용 후 머리 감은 후 화장실 바닥이 까맣게 될 정도로 빠진 머리가 한 올도 안 빠진다.
- (70대 남) - 전립선암, 대장암 수술 이후 다리 전체 절임이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됐다.
- (50대 남) - 쓸개 수술 후 3년동안 하루 6번 설사가 이를 복용 후 멈추었다.
- (60대 남) - 신장투석 중 가려운 증세가 없어지고 인 성분이 툭 떨어졌다.
- (80대 여) - 각종 암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한 병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되고 있음.
- (50대 남 외국인) - 대장암 환자. 미라팜-22를 2병째 먹고 대변 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회복됨.
- (50대 여 외국인) - 체제가 유방암 수술 후 개발하여 미라팜-22 복용 후 6개월 만에 완치 관정받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국 미라팜-22 독점권을 신청하여 획득하고 현재 사업 중임.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받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동성애, 헌법 파괴하고 국가 및 가정에 위기 초래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2차 세미나



세미나에 앞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제2차 세미나가 27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장총 사회 인권위원장 박종인 목사를 좌장으로 선진교육학부모연합 이재홍 대표가 ‘동성애를 허용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재홍 대표는 “가정 붕괴 현상에 따라 가족·부부 간 존재하는 정신적 사랑의 힘은 크게 약화됐고, 오히려 성문화 개방의식은 더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점점 만연하는 쾌락 문화와 자녀 출산에 대한 기피의식이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희석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평균 1인당 2.1명을 출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현재 혼전동거가 늘고 있는데, 앞으로 동성결혼마저 합법화된다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더욱 낮아져 국가 경쟁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며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 속에서, 사회와 국가가 붕괴하지 않으려면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그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 근거를 헌법에서 살폈다. 헌법 제2장 36조에는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그는 “이 헌법규정을 분석하면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방어권으

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유지되는 혼인·가족 제도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성평등을 기초로 남녀 이성의 결합만이 합법적 혼인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적시하고, 이는 남녀간 혼인에 의거해 자녀가 출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요약하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양성평등 하에 가정을 만들고 모성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게 행복을 추구할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동성애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첫째로는 앞서 언급했듯 출산율 저하로 인해 산업구조에 따른 성장능력과 국방능력 등 국가 경쟁력이 총체적으로 약화된다.

둘째로 가정이 붕괴되거나 문화가 변형된다. 이 대표는 “스위스나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남편·아내 대신 부모 1·2·3 등이 나타나고, 자녀를 원하면 대리모를 이용하거나 입양을 하게 된다”며 “남녀간 결혼한 이성애 부부는 자신들보다 자녀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보이지만, 동성결혼 부부들은 입양한 자녀들보다 자신들을 중요하게 느끼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이유로 동성애자 부모에게 입양된 자녀들이 법정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했다는 것. 그는 “입양된 자녀들은 파트너를 바꿔가며 동성애를 하는 부모들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어, 그들은 후에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무려 55%에 달한다”며 “동성애자 부모에게서 성폭행 피해자가 될까 불안함을 갖고 살기도 한다”고 폭로했다.

셋째로 음란한 성문화가 만연된

다. 그는 “통계를 보면 동성애자들은 평생 한 사람과만 지내지 않고, 평균 100-500명의 파트너가 있는 것을 보면 동성애가 얼마나 음란한 현상인지 알 수 있다”며 “동성애는 성적 취향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성 탐닉을 수반하고, 독일처럼 수간과 근친상간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벌써부터 동성애 코드의 영화나 드라마, 예능 코너가 늘고 있는데, 동성애가 합법화될 경우 동성애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광고 홍보 등 마케팅 문화도 범람하고 동성애자를 위한 거주 및 가구문화도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넷째로는 성병과 에이즈 감염자 증가를 꼽았다. 이 대표는 “한국은 이미 HIV 감염자가 공식적으로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로 분류됐다”며 “현재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 간에 동성간 성폭행과 성매매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청소년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공식 인정한다면 학생과 군인들 사이에 에이즈가 만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홍 대표는 “동성애를 허용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생명도 무너지게 된다”며 “가정과 생명은 서로 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생명을 잉태시키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방관하면 붕괴된 가정이라는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 및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현상은 무조건 막아야 하고, 기존 동성애자들은 치유·회복을 통해 그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온 국민과 국가가 협력하여 동성애자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거국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는 다름 아닌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김순희 상임대표(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방자경 상임대표(나라사랑 바른학부모 실천모임), 이계성 공동대표(반국가교육적결 국민연합) 등이 토론을 펼쳤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기독교·불교·천주교가 순번제로 대표직을 맡는다는 규정에 따라,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를 상임위원장에 위촉했다. 이대용 기자

건실한 치리와 장로정치 정착에 힘써야

성경신학회서 김요섭·김진국·이승구·이은선 박사 발제



한국성경신학회 제35차 정기논문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성경신학회 제35차 정기논문발표회가 ‘요한 나스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26일(월) 오후 서울 신반포중앙교회(담임 김성봉 목사)에서 열렸다. 김요섭(총신대)·김진국(대신총회신학교)·이승구(합동신대)·이은선(안양대)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종교개혁자 요한 나스의 사명 인식과 그 역사적 배경’을 제목으로 발표한 김요섭 박사는 “나스가 스스로 인식하고 실천하려 했던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그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거나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았다”며 “그의 사명은 다만 기록된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당시 종교의 타락에 맞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에 집중됐다”고 했다.

김 박사는 “나스는 타협할 줄 모르는 강력한 사명 의식으로, 갈수록 커져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말씀의 가르침에 종속시킬 수 있었다”며 “나스의 가르침과 사역이 열광주의나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0년간의 핍박과 고난, 그리고 피난 기간의 훈련을 통해 자신의 선지자적 사명 의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요한 나스를 통해 개혁된 스코틀랜드 교회: 한국교회와 장로교회와의 관계’를 제목으로 발표한 김진국 박사는 “스코틀랜드 교회는 나스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가 됐고, 멜빌 이후 장로교회의 특성이 가장 잘 심겼다”며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거듭난 한국 신자들이 처음 교회를 설립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한국에 교회를

심어준 최초의 교회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했다.

김 박사는 또 “한국 장로교회는 교회 치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 그것을 교회의 표지로서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나스와 멜빌의 교회 치리서를 제시해 교회를 개혁하고, ‘장로정치’를 신적 권리로 파수하기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도 불사한 언약도들의 개혁정신을 배워야 한다. 이런 유산을 받은 장로교회는 장로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건실한 교회치리와 장로정치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승구 박사는 ‘요한 나스와 <제1치리서>’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제1치리서>는 교회의 형태가 비정상인 것을 극복하게 만든 치리서”라며 “이 문서가 갖는 또 하나의 특성은 이것이 스코틀랜드 전체의 교회와 학교를 개혁하는 것과 관련된 문서들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요한 나스와 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제목으로 발표한 이은선 박사는 “나스는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로교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했다”며 “1560년 8월에 개혁의회가 소집돼 신앙고백서를 제정해 통과시켰으나 <제1치리서>는 승인받지 못했다. 이러한 신앙고백서는 개혁교회의 입장을 반영했는데, 특히 국가로부터 구별되는 치리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치리를 교회의 3대 표지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서 독립된 교회의 치리권을 명확하게 확보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장로교 제도의 수립을 통해 교회는 국가에서 구별되는 총회 소집권과 치리권이 있음을 천명해 국가로부터 독립된 교회의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747-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이슬람교도 레자 아슬란의 예수론 비판 (마지막회)

- I. 방법론적 오류: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의 분리
- II. 아슬란은 신약성경의 고유한 텍스트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III. 아슬란은 역사적 예수를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한다
- IV. 정치 혁명이 예수는 복음서 예수상과 전혀 다른, 낯선, 날조(捏造)된 인물

1. 복음서 기자와 다른 전혀 다른 인물: 정치적 혁명가 날조

아슬란은 네 복음서(마가·누가·마태·요한복음)가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앙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단지 하나의 혁명적인 열정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예수는 예루살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골인 갈릴리에서도 더욱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아주 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예수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음에서 살린 그리스도도가 아니라 젤롯, 즉 열망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젤롯,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본래 혁명가이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는 이 땅에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를 배회하던 젤롯(열망)을 가진 인물,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의 권위에 반발한 매혹적인 설교자, 로마의 압제에 도전하다 실패한 과격한 민족주의자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래의 예수였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죽은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복음서 필자들에게 의해 날조(捏造)되었다는 것이다. 아슬란은 또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서가 여러 사람에게 의해 각색(脚色)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예수라는 인물의 역사적 실재는 인정하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과 순교를 당하신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란 더 이상 순교와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단지 역사적인 사형틀에 불과하며,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열심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다.

아슬란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 목

숨을 보전한 유대인들이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로마에 사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집필하기 시작한 것이 복음서라는 것이다. 복음서 집필을 위해서는 유대 민족주의·혁명주의 색채를 지울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예수의 원래의 모습, 정치적 혁명가상도 점차 희석되어갔다고 본다. 그는 누가복음 24장 44-48절에서 부활한 예수가 말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에, 예수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2. 아슬란의 은폐된 욕망이 그의 예수상에 투영

아슬란이 제시한 혁명적 예수상에는 그의 은폐된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아슬란은 젊은 시절 기독교 근본주의자로서 성경무오설과 축자영감설을 맹목적으로 믿었으나, 그것으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근본주의적 신앙의 성벽 앞에서 좌절을 맛보고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의 이러한 좌절은, 이제 혁명가 예수의 정치실현으로 나타난 것이다.

영문학 교수 출신 목회자 이인기는 『젤롯』 서평에서 아슬란의 예수상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은폐된 욕망”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은폐된 욕망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이유는,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1960년대 해방신학자와 혁명신학자들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정보를 새로운 언어로 포장하려고 한 시도는 20여년간 예수를 연구한 진지한 학자에게서 예상할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그가 자신의 집필의도를 자신의 저서 속에 심어 놓았음을 암시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이인기, “레자 아슬란의 『젤롯』 : 은폐된 욕망 읽기” in: 「신학과 교회」, 창간호 2014 여름, 해암연구소, 308).

이러한 은폐된 욕망을 지적하는 이인기의 통찰은 주목할 만하다. 아슬란은 “『젤롯』을 통해 정치 혁명가적 예수를 재구성한 의도가, 이와 같이 기독교의 근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혁명적 욕구와 그것의 좌절을 형상화하려는 것”이다. 아슬란이 “자신의 저술 곳곳에서 부각시킨, 난공불락의 공고한 로마제국과 지배세력에 항변한 예수의 모습으로부터, 이슬람으로부터의 개종자가 느끼는 기독교 근본주의에 의한 좌절과 혁명적 욕구를 투영한 모습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을 확인할 수 있다.”(이인기, “레자 아슬란의 『젤롯』 : 은폐된 욕망 읽기” 309).

3. 역사적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구약이 예언한 사건

아슬란의 혁명가 예수상은 전혀 복음서에 나타난 역사적 예수와 다르다. 아슬란이 인용하는 마태복음의 10장 34절이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기존 체제의 전복을 말하는 혁명가로서의 예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은 복음의 전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영적 갈등과 가족의 갈등을 수용 내지 감수해야 하는 복음 극단주의(Gospel radicalism)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수는 당시 로마 시대에 이미 세상의 평화가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고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이루어짐을 지적한 것이다.

신약성경에 대한 아슬란의 이러한 해석학적 오해는, 그가 지식적으로는 신약학자라고는 하나 신구약의 구속사적 체계적 연관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오순절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는 시편을 인용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8-11).

그리고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시 110:1)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예수의 높이 올리우심과 승천을 예언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행 2:36b)고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관하여 누가는 사도행전(행 2:25-28; 행 2:34-35)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기록하면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해석학적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연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구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출애굽기 구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출 18:18). 시편의 구절들, “너는 뿔기세택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니라”(시 110:4-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 2:7). 이사야 구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등은 메시아에 대해 구약에 나타난 예언이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서 성취되었음을, 복음서 필자들과 사도들은 그들의 서신에서 증언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메시아예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1-3).

총결론

초대교회 시에는 영지주의들의 예수상이 사도적 교회에 도전했으나 사라졌고, 19세기에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예수상이 나타났으나 오늘날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20세기 말 이래는 영지주의 예수상

이 다시 현대의 역사비판학의 방법과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다. 해방신학의 혁명가적 예수상은 1960년대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2010년대 오늘날 아슬란(Reza Aslan)의 저서 『젤롯』(Zealot)을 통하여 다시 잠깐 주목을 받고 있다. 혁명가적 예수상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일어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자 알카에다의 테러가 오늘날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위협이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슬람의 반기독교적 공격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종교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상은 이미 1960년대 흥미한 해방신학과 혁명신학의 예수상처럼 오늘날 9.11 테러 이후 시대에 관심을 끌고 있으나,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슬란의 예수상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이미 지난 것의 되풀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대적 유행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충실히 머무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1세기에 역사적 예수에 관하여 엄격적 통찰을 제시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예수 그리스도는 “뿔기세택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히 5:10), “하나님의 아들”(히 5:5)이요, “영원한 구원”자(히 5:9)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다. 그것은 2천년 기독교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서구와 북미의 기독교가 쇠퇴한 것은 사실이나, 역사적 예수를 “신앙의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주의 기독교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다. 서구에서 기독교 이후 시대가 도래하자, 기독교의 축이 서구와 북반구에서 아시아와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기독교에서 역사적 예수는 바로 신앙의 그리스도로서 신자들을 통하여 경배되고 선포된다. 지금도 12월이면 세계적으로 온 기독교가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 세계교회는 단지 지나간 기록상의 예수만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역사적 예수는 이러한 대림절과 성탄절에서 현재적으로 오시는 구세주로서, 신앙 안에서 교회와 신자들의 현재적 인격적 체험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구주(Kyrios)로서 증시되고 있다.

(끝)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한의원

추측 확장이 전!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함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통증 클리닉: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임증
한방내과: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부인과: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정신과: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환
한방소아과: 하악체질, 소아경기, 성장방 및 보약 기타: 비만치료

이런분께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앓고 싶은 분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장소를 이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144 s western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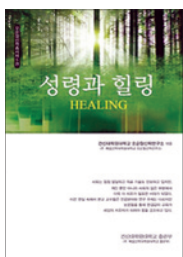


신간추천

성령과 힐링

오순절신학연구소 | 건신대출판부 | 288쪽

‘건신대학원대학교’로 이름을 바꾼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의 오순절 신학총서 다섯 번째 책. 기독교의 본질 중 하나가 세상을 치유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책에 나타난 치유 사역에 대한 신학적·실제적 제언은 건전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교회 사역의 핵심을 본질적으로 재설정하도록 돕는다. 조영모·정일승·안승권·이상환·장광진·배덕만·조규형·임영철 박사 등이 참여했다.



뉴욕 111번가의 목수

존 고든 | 한국경제신문 | 220쪽

베스트셀러 <에너지 버스>를 쓴 저자가 ‘나를 바꾸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부제로 써내려간 새로운 감동 스토리. 젊은 벤처 사업가 마이클은 아침 조깅을 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그의 생명을 구한 남자는 실신한 그를 병원에 옮긴 뒤 명함 한 장만 남겨놓고 사라진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명함에는 ‘목수’라는 글자와 전화번호만 적혀 있다. 그는 명함을 들고 111번가로 향하는데...



자녀에게 물려주는 신앙유산

박수웅 | 두란노 | 256쪽

박수웅 장로는 순교한 조부와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신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다. 그는 이 책에서 신앙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라고 한다. 또한 성경 말씀대로 부모가 살고, 성경적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무엇보다 소통하는 가정으로 만들라고 권한다.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려면 세상의 스펙이나 부 같은 우상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권기호 | 예수전도단 | 292쪽

이 책은 주님의 주재권(主宰權) 회복을 일관되게 호소하고 있다. 저자는 세상과 구별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명쾌하게 풀어내는 동시에, 오늘날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들을 강하게 두드려 깨우는 선지자적 호소가 인상적이다.



REVIEW

청교도 지도자로서, 목회의 본질과 덕목을 밝힌 고전

목회자의 자아성찰과 목회 자세에 관한 위대한 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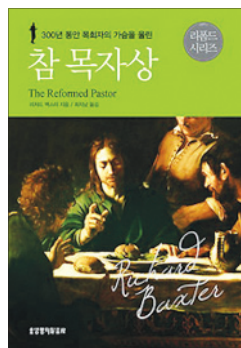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는 1615년 11월 12일 잉글랜드 슈롭셔(Shropshire)의 로우턴(Rowton)에서 태어났다. 금세기 최후의 청교도라고 불리는 제임스 패커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를 가리켜 “청교도의 실제적이고 경건한 가르침을 가장 잘 전한 목회자, 전도자, 그리고 저술가”라고 평가했다.

리처드 백스터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참 목자상>은 목회자의 자아성찰과 목회 자세에 관한 위대한 고전이다. <참 목자상>은 제1부 목회자의 자아성찰, 제2부 양들의 보살핌, 제3부 목회의 실제라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교회와 회중을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족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교역을 수행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이로서의 목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목사)는 부드럽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교훈되는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백스터에 따르면 목회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 그리고 양떼를 구원하는 문제다. 사명은 한 사람



참 목자상
리처드 백스터
생명의말씀사 | 312쪽

의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보살피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목회자의 언행일치와 겸손을 강조했다. 목회자는 자신이 최고의 지식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 되며, 교인들과 의견이 서로 다르다 해서 그들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만한 천사를 쫓아내신 하나님은 교만한 설교자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목회자는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만이 죄의 뿌리라고 했다. 다른 이의 교만보다 목회자의 교만은 더욱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했다.

<강단의 거성들>의 저자 도널드 디머레이는 <참 목자상>에 대해 “목

회자의 과업에 대한 고전적 문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했고, 목사요 전승가 작시자(주의 말씀 받은 그 날)인 필립 도드리지(Philip Doddridge, 1702-1751)는 말하기를, 젊은 목회자는 모두 목회 일선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책을 숙독해야 한다고 했다.

목회와 같은 큰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그의 행동에 따라 그리스도의 명예가 좌우된다. 그리고 목회자의 수고의 성공 여부는 그 자신을 살피는 데 달려 있다고 백스터는 말한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원 대표)

성화 특별 기획전

크리스천이라면 가정에서 하나쯤은 꼭 소장하고 싶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 성화를 특별 할인판매 합니다. 교회 임직자들 선물용으로, 교회에 하나쯤은 꼭 비치하면 좋습니다.



성화특별기획전

- 18×36 - \$ 200
- 19×27 - \$ 150
- 27×39 - \$ 200
- 12×20 - \$ 60
- 6×8 - \$ 30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문의하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T) 213-434-1170

“작심삼일” 넘어, 1년 내내 가정예배와 말씀 묵상을!

1년 365일, 매일 신앙성장 돕는 도서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적 결심'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작심삼일'. 그 고비를 이겨내고 달려갈 수 있도록, '1년 365일' 활용할 수 있는 최근 발간 도서들을 소개한다.



교리와 함께하는 365 가정예배
임경근 | 세움북스 | 400쪽

〈교리와 함께하는 365 가정예배(세움북스)〉는 '하이텔베르크 요리문답'을 기초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획된 책이다. 교리문답 순서에 맞춰 먼저 관련 성경구절을 읽고, 교리를 쉽게 풀어 쓴 해설을 읽은 다음, 주어진 2개의 질문을 함께 이야기하고 제시된 찬송을 부르는 형식이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 소개된 요리문답 원문을 끝에 실린 부록에서 찾아 읽으면 된다.

저자는 “가정예배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부모가 설교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설교는 교회에서 듣고,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읽은 성경과 설명된 교리적 내용을 배우고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부모가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나누면 된다”며 “필요할 경우 훈육의 말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설교는 잔소리가 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지겹고 싫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1주일에 한 번씩 성품을 주제로 하는 '성품예배'를 구성, 온 가족이 1주일에 한 성품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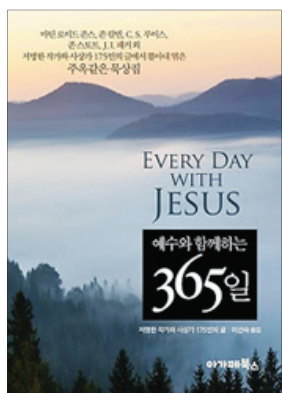
'교리'를 바탕으로 한 것에 대해선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고, 성경 지식이 늘어가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교리적 지식'으로, 성경을 논리적 주제에 따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리로 무장돼 있지 못하면, 자신들이 고안하고 만든 교리적 체계로 우리와 자녀들을 유혹하며 공격하는 이단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리를 잘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

는 본분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것. 저자는 “교리적 체계를 세워갈 때 믿음은 더 든든히 서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가정예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자는 자신도 네 자녀와 함께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리적 주제'를 다뤘지만 여러 분량으로 나눠 딱딱하지 않고, 중학생 정도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2월 31일'은 교리문답 마지막 129문의 '주기도문'에서 '아멘'을 설명한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이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경험하는 일과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365일
저명 작가 175인 | 이선숙 옮김
아가페북스 | 4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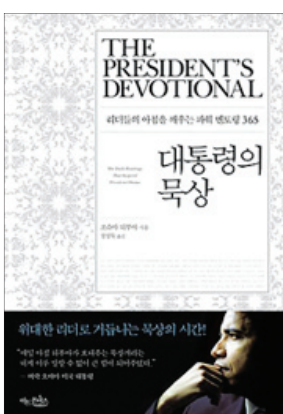
시대를 초월한 기독교 저명인사 175인의 명문(名文)들을 예화와 함께 짧은 묵상으로 재가공했고, 매일 읽어 볼 성경 말씀과 기도문을 첨부했다.

실제로 어거스틴과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부터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찰스 스펄전과 드와이트 무디, C.S. 루이스와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틀와 빌리 그레함, 필립 안시와 빌 하이벨스 등 매우 다양한 인사들을 망라했다.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책으로 매일 갖고 다니면서 출퇴근 길에 잠깐씩 읽거나 선물용으로도 괜찮다. 마지막에는 365개의 문장에 대한 출처를 기록해 놓았다. 묵상글도 짧아서 하루 3분이면 읽을 수 있다.

이 책의 '12월 31일'은 피터 마살의 문장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아시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뿐인 당신을 만드셨다.” 이후 묻는다. “이제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새해는 소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갖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읽을 말씀은 시편 103편.



대통령의 묵상
조슈아 뒤부아 | 아드폰테스 | 504쪽

지난해 말 “오바마 대통령의 신앙이 재선 임기 동안 더욱 깊어졌다”는 보도가 화제였다. 미 크리스천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앙은 작은 믿음들이 모여 과거보다 좋아졌고, 그는 다른 방식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서 '관련자 증언'에 나선 이는 백악관 신앙정책실 전 책임자 조슈아 뒤부아(Joshua Dubois) 목사였다. 그는 “대통령의 신앙은, 어느 누구의 신념이나 특정한 정책, 뉴스 등 어떤 것과도 연결되거나 의존하고 있지 않다”며 “그의 신앙은 백악관에 오기 전부터 계속 이어 왔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뒤부아 목사는 오바마의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08년, 그에게 용기를 주고자 지혜와 용기와 영감을 주는 성경구절, 짧막한 이야기, 인용문 등을 이메일로 보냈고, 오바마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답신했다. 이후 그는 4년간 매일 이메일을 보냈다. 오바마 당선 후 백악관에 입성한 참모들 중 유일한 목회자로 '대통령의 묵상'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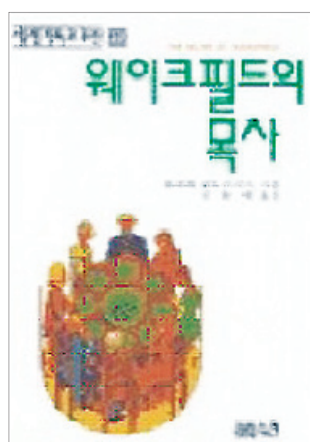
〈대통령의 묵상〉은 바로 이 뒤부아 목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던 이메일 내용 중 1년 분량을 엮은 것이다. 달이 바뀔 때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자택에 찾아가 일이나, '오바마의 영적 스승' 제레미 라이트 목사의 '갓 템 아메리카' 발언에 대처한 일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의 12월 31일 이메일은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시 130:5-6).”

이대웅 기자

“불만의 시대, 성도의 삶”

웨이크필드의 목사 이야기



웨이크필드의 목사
올리버 골드스미스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262쪽

이 책의 줄거리는 이렇다. 주인공 프림로즈 목사는 유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격이 쾌활하고 인자하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날 커다란 시련이 불어온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던 상인이 파산하게 되어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 적은 사례금만으로 생활할 수 없어, 다른 지방으로 옮겨 목사직과 더불어 소작인의 삶을 살아간다. 새로 이사간 마을에 쏠힐이라는 지주가 있었다. 그는 품행이 불량하고 마을 처녀들을 유혹하는 사악한 남자였다.

프림로즈 목사의 가정이 이곳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모의 심성이 착한 딸 올리베아가 쏠힐의 유혹에 넘어가 유린당하게 된다. 그 후 쏠힐에게서 도망쳐 주막에 피신했던 올리베아를 데리고 겨우 집으로 돌아오지만, 집은 불타고 있었다. 불 속에서 두 아들을 구하면서 자신도 화상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프림로즈 목사는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쏠힐이 다시 찾아와 올리베아를 정식 아내로 허락해 달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겠다고 하자, 그를 고소하고 만다. 프림로즈 목사는 빛을 갖지 못해 옥에 들어간다. 그곳에서도 그는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다른 죄수들에게 설교하며 옥중 생활을 참고 견디라고 격려한다.

프림로즈 목사는 삶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작가는 여기서 프림로즈 목사의 옥중 설교를 한 장에 걸쳐 실는다. 그는 이 세상은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아 보이고 행복하기보다 불행하게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고 권한다. 이 설교가 끝나자 둘째 딸 소피아를 좋아했던 버첼 씨가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역전된다. 버첼 씨야말로 쏠힐의 삼촌이자 많은 세력과 큰 권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국민의 벗인 동시에 국왕의 총신이었던 윌리엄 경이었다.

마치 용기를 잃는 것 같다. 순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않았던 프림로즈에게 어느 날 불어닥친 고난은, 그

를 고난의 늪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림로즈는 읊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한다. 읊기 마지막에 나타난 하나님처럼, 프림로즈 목사는 버첼 씨의 등장으로 모든 상황의 반전을 맞게 된다.

저자인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아일랜드인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천성이 게으르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다 46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었다고 한다. 청년 시절 내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먹을 것도 없어 자신의 옷을 전당포에 맡길 만큼 힘겨운 생활을 했다. 그러다 글쓰기와 번역을 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필체를 개발해 나갔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프림로즈 목사는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자화상이자 이상형이다. 그는 비록 자신은 성공으로 인해 순수함을 잃고 문란한 삶을 살았지만,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었던 것이다. 저자는 영약한 지혜보다 순수한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한다. 프림로즈 목사는 순수하지만 어리석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돌보신다고 확신했다.

고난은 필요악(必要惡)이 아니다.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며,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주는 위장된 기회이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볼 일이다.

정현욱 목사/로고서사원 연구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결합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승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 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병 예방, 원인을 밝혀내서 상임연방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약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라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부어국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스타치오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떡볶이
금: 궁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가스 치킨테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213-598-5552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ra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Tel. 323.737.2922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3달분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2015 Genesis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2014 Genesis 3.8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2014 Equus signature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3301 East 233rd St. Carson 90745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북송 위기 탈북소년의 절규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스웨덴의 중국 송환 움직임에 인권단체들 비판



북한정의연대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가 지난 26일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탈북고아(일명 꽃제비)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는(북한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스웨덴 이민국 탈북고아의 인터뷰 진술문)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북한정의연대(정베드로 대표)와 탈북난민의 인권 침해 피해를 접수 조사하는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이한별 소장)는, 최근 스웨덴 당국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탈북고아(일명 꽃제비)의 인권을 보호하고 해당국의 난민심사를 재심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6일(월) 오전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함북 회령에서 출생한 이 소년은, 7세 때 어머니가 병사하고 8세 때 아버지가 말살수로

정치범수용소로 잡혀간 후 꽃제비로 생활하다가 2013년 3월 중순 탈북 브로커의 도움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4월 초 스웨덴에 도착하여 한 구호단체를 통해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 소년의 난민신청은 2013년 7월에 거절된 후, 2년여 동안 망명 신청 소송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 세 번째 항소가 최근 이민국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민국은 이 소년이 북한 출생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중국 조선족일 것이라는 두 가설을 두고, 원래 왔던 나라로 강제송환하기로 한 법원 판단에 따라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두 단체는 이 소년의 강제송환에 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접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지의 이민국이 위박한 민간조사원이 이 소년

을 상대로 실시한 두 개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자체 분석을 실시했다. 동시에 이 소년이 출생하여 꽃제비를 하며 살았던 지방(함경북도·양강도) 출신의 탈북자들과의 집단 청취를 통해서, 이 소년의 사용 어휘·어투·인지능력 등 전체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스웨덴 이민국(민간조사원의) 두 차례의 조사 방법과 과정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북한정의연대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는 “스웨덴 이민국이 해당 소년과 벌인 인터뷰 분석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면접관들은 북한 사정에 대해 잘 모르며 필요하지도 않은 유도심문까지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스웨덴 정부가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지 면접관의 조사보다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에 정통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소년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며 “스웨덴 정부는 그 소년의 강제송환절차를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한국 대사관이 나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신원 확인 공조를 이루고 한국 정부로 이 소년을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이하 시민연합)도 지난 15일 스웨덴 정부가 이 소년의 강제 추방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 소년이 스웨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대신 한국으로 데려 올 것을 주장했다.

하석수 기자

한기총, 주요 현안들 차기 임원회로 넘겨

정기총회 별다른 논란 없이 마무리, 기하성 서대문측 복귀



한기총 정기총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27일 오전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대 311명 중 204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당초 이단 해제 재심 관련 안건들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으나, 주요 안건들을 모두 임원회로 넘긴 뒤 별다른 논란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배포된 이대위 보고서에서는 한기총의 이단 해제 관련 7개 교단 및 단체의 이의 제기를 각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윤덕남 총무서리는 한기총 운영세칙 제10조 4항 “상임위원회 중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결의 내용은 임원회에 보고한 후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최종 의결한다. 단, 실행위원회에서 임원회에 최종 의결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한다. 총회는 실행위원회 보고만 받는다”는 내용을 들어 “총회에서는 보고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기총 정관에 따라 (이대위 보고서는) 차기 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차기 실행위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뒤, 동의와 재정을 받아 2014년도 경과·사업 및 주요 현안 보고를 통과시켰다.

이 밖에 총회에서는 2014년도 감사보고, 2014년도 결산보고,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과시켰고, 임원 및 상임위원장 인준 및 특별위원장 임명도 전례에 따라 대표회장에 위임해 차기 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측(총회장 함동근 목사)이 한기총에 복귀해 눈길을 끌었다. 서대문측은 한기총 사태 이후 그간 한교연과 NCKK에서만 활동해 왔으나, 이번에 1년치 회비를 완납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

혀왔다는 사실이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실행위에서 보고됐다. 이에 실행위에서는 잠시 감론을박이 있었으나, 결국 서대문측의 복귀를 수용하기로 했다.

회의 중에는 윤덕남 총무서리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가 있었다. 한 총대가 “윤덕남 목사가 소속 교단(기독교한국침례회)을 복귀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보류한 교단의 인사가 어떻게 총무직을 맡을 수 있는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흥재철 직전 대표회장이 “총무는 총대가 아니라 직원이고, 고신 끝에 윤덕남 목사를 임명했던 것”이라며 이 문제도 임원회에 맡겨 달라고 요청해 그대로 통과됐다.

한기총은 이날 채택한 ‘제26회 총회선언문’에서 ▲영적 지도력 회복 ▲연합 ▲회개·기도·성령운동을 통한 영적대각성 ▲통일 준비 ▲진보주의와 좌경화 경계 및 보수 복음적 신앙 전통 계승 ▲이단 사이비 대처 ▲교권·물량주의 지양 등을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기총 정관과 WCC에 관련된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기총 정관은 지난 1월 6일 문체부에서 인준을 받았고, 본인과 본인의 소속 교단은 반복음적 사상에 대해 단호히 배격한다”고 해명한 뒤, “악성 루머를 확인하지도 않고 퍼뜨려 대표회장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기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어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회 개최예배에서는 직전 대표회장 흥재철 목사가 ‘항해하는 한기총호’(행 27:13-26)를 주제로 설교했고, 명예회장 이강평 목사가 사회, 증경대표회장 이용규 목사가 격려사, 증경회장 이만신 목사가 축도했다.

류재광 기자

13만 경찰가족 선교 위해 교회가 앞장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신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취임



이영훈 목사

본국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교경협) 제42대 대표회장에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가 취임했다.

국내 33개 교단이 연합하여 전국 13만 경찰 신자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교경협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부암동 A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나라의 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오찬기도회 및 제42차 정기총회’를 열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4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

사는 교경협이 주최, 경찰청 경목실이 주관하고 경찰청이 후원했다.

앞서 열린 오찬기도회 1부 순서는 사무총장 박노아 목사의 사회로 경목실장 양재철 목사, 공동회장 양정섭 목사, 한국경찰선교연합회 이사장 임은태 장로가 각각 ‘대통령과 나라안정을 위하여’, ‘경찰청장과 민생치안을 위하여’, ‘경찰선교와 교경 발전을 위하여’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이영훈 목사는 “먼저 구할 것이라”(마6:33)는 제목의 설교에서 “대한민국이 잠든 행복을 누리고 남북통일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불신, 불평, 자기주장만 하는 인간의 나라는 무너지고 잠든 평화와 기쁨,

자유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의가 바로 설 때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려면 법이 존중되고 공권력이 서야 하며, 소외되고 가난한 자, 힘이 없는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극빈층 등을 법으로 잘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질 때 대한민국이 범지구국으로서 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로 굳게 설 것을 믿는다”며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잘 지켜 행하여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동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전국민의료보험시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c)(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런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지부장: 김경호 목사

☎ 213.249.1161
shelby.moon65@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일보 LA

☎ 949.864.9162
cmm6791027@gmail.com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